

김영희 작
'Space composition'

광주-일본 미술로 소통

GNG-훗카이도 교류전

9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GNG (Gwangju New Art Group·회장 김영희)와 일본 훗카이도 미술협회 작가들이 함께하는 'GNG, 훗카이도 특별 교류전'이 오는 9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두 단체는 앞서 지난해 훗카이도에서 제1회 'GNG, 훗카이도 특별교류전'을 진행한 바 있다. GNG와 일본 훗카이도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 작가로는 강다희·김영태·김영희·서영기·위진수·이이남·이조흠·장용훈·조대원·엄기준·박다혜·조선아 씨 등이 참여하고, 일본 작가로는 요시노리 아라이, 치나츠 아이타, 카즈히코 후지모토, 이루오 와나타베 등 12명이 참여한다.

전시 기간 일본 작가들은 물론 훗카이도 문화재단 부이사장과 직원들이 광주를 방문, GNG 소속작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미술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둘러보게 된다.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

'길 위의 스토리텔링' 참가자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이 오는 18일까지 스토리텔링 기획 강좌인 '길 위의 스토리텔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0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되는 이 강좌는 우리 지역 역사와 인물에

대한 스토리 발굴을 위한 강의, 글쓰기, 교료가 접목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강좌는 기억, 문화 그리고 기록과 연계한 세 번의 교육과 우리 지역의 역사 장소 등을 답사하는 현장체험으로 운영된다. 강좌는 무료다. 문의 062-610-2456.

/김경인기자 kki@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 내일 공청회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비엔날레 혁신 위원회에서 미술과 문화 예술계, 시민 사회, 예술경영 및 도시 문화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성진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 책임연구위원이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 결과를 요약 보고한다.

이러 '광주비엔날레 지역과 세계화의 관계'(이지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 '광주비엔날레 조직 및 경영 효율화'(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발제가 이어진다. 좌장은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다.

좌장 토론자로는 김희진 전 대한공간 풀 디렉터,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이상섭 전 부산비엔날레 사무국장, 이한호 주식컴퍼니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24. /김경인기자 kki@



애들아, 클래식 쉽게 알려줄게

GSO TEENS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향, 청소년 위한 클래식 워크북 'GSO TEENS' 펴내

악기 소개·오케스트라 배치·관람 에티켓·감상평 써보기 등

단체 관람 신청학교에 미리 배포... 12일 정기연주회서도

클래식 공연 관람의 고역 중 하나는 청소년 관객들이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접하게 하는 게 맞는 한데, 음악을 감상하는 기본 태도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람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다.

무엇보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수행평가 때문에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은 고역일 뿐이다. 클래식 대중화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학교 음악 시간에 왜 미리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걸까 답답하기만 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지난 7월 열렸던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클래식 공연에 이어 가장 수요가 높았던 게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24%)이었다. 또 다른 장르와의 협업(23%), 리허설 체험(19%) 등에 대한 이도 있었다. 이현세 광주시향 상임지휘자도 올 초 취임 인터뷰에서 "아랫 세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클래식의 미래는 없다"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GWANGJU SYMPHONY ORCHESTRA)이 의미 있는 책자를 펴냈다.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워크북 'GSO TEENS-레벨 1'이다. 지금까지 시립예술단체들이 '공연'에만 치중할 뿐 청소년 교육 등에 거의 관심이 없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다. 특히 교육청과의 연계와 예산 협조 등을 통해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

A4 크기에 16페이지 용 컬러로 제작된 워크북은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클래식 초보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차게 제작됐다.

레슨 1과 2는 클래식 음악과 오케스트라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레슨 3부터 6까지는 악기 소개로 구성됐다.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나눠 첼리스트 박문경 씨 등 시향 연주자를 모델로 17개의 악기 사진과 설명을 곁들였으며 각 악기의 특색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추천곡들을 함께 실었다.

예를 들면 현악기의 경우 모차르트 '현을 위한 세레나데', 금관악기군의 시벨리우스 '핀란드야' 등이다.

레슨7은 오케스트라 자리 배치를 알아보는 코너다. 별지로 제작된 악기 모양 스티커를 직접 책에 붙여가며 배치도를 익히게 되며 클래식 에티켓 10계명 등도 담았다.

마지막 레슨은 '공연 관람후'다. 공연 티켓을 붙이고 연주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 작곡가 등에 기록할 수 있다. 또 공연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을 시향 메일로 보내줘도 된다. '느껴보기'는 공연 감상평을 글과 시, 그림 등 다양한 장르로 적는 코너다.

감상평을 사진으로 찍어 시향 페이스북(@gjsymphony)에 올리면 연주회 티켓도 증정한다. 또 '내가 공연기획자라면'도 재미있다.

워크북 제작은 광주시향 홍보팀 정하나(28)씨가 주도적으로 맡았고 시향 김영연 부지휘자가 내용 등을 감수했다. '한솔 뮤지엄 산', 원주문화재단 등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예술 교육이 활발한 미술과 달리 공연쪽에서는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아쉬웠다.

시향의 찾아가는 예술단과 학교를 방문했던 정씨는 일동중 하은미 음악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 악기 구성 등 기본적인 내용으로 콘텐트를 짰다. 이후 작곡가를 소개하거나 광주시향의 1년 정기 프로그램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다루는 워크북을 제작하는 등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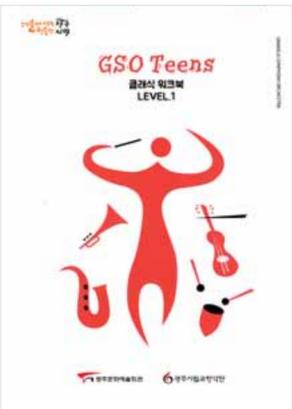
시향측은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00부를 발행했다. 초·중·고 단체 관람을 신청하는 교사에게 워크북을 미리 배포, 학교와 가정에서 미리 학습하고 공연장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한정 부수인 터라 우선 학교에 배포하지만 오는 12월 열리는 정기 연주회 때는 개별 청소년 관객에게도 증정할 예정이다.

정하나씨는 "얼핏 보면 아주 쉬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클래식 초보자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학생들의 감상평으로 콘텐트를 여는 등 이벤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날 공연 한 시간 전(오후 6시10분~7시1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리셉션실에서 연주 레퍼토리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교향악단 연주회가 있는 주에 날짜를 미리 잡아 좀 더 심도 있게 레퍼토리를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2일 '관현악 대가' 베를리오즈 만나세요

'관현악의 대가, 베를리오즈를 만나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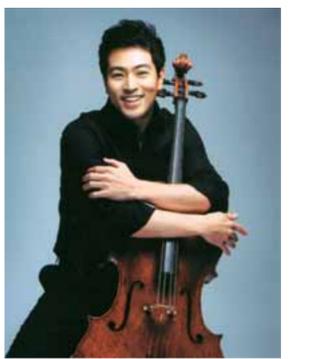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의 첫 곡은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겁벌 중 라코치 행진곡 작품 24'다.

스타 첼리스트 송영훈(사진)은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을 협연한다. 잉글리쉬첼메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유

수의 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진 송씨는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과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진행자로 활동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피날레곡은 '환상교향곡 작품 14'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의 에피소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곡은 베를리오즈가 자신의 실연에 바탕을 둔 이상한 환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